

■ 오바마와 라틴아메리카¹⁾

로렌 넬슨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과 버락 오바마는 이라크전이나 세계금융위기 같은 주요 대외정책 이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라틴아메리카 관련 대외정책은 최근의 대선후보토론이나 가두연설에서 사라졌다. 양 후보가 대중의 관심이 높은 국내외 사안 관련 핵심공약을 되풀이하면서 막판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면 최근 대선후보토론에서, 자국에서 노조 지도자의 암살이 횡행하는 데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오바마의 짧은 언급이다.

그렇지만 버락 오바마는 선거운동 내내 미국-라틴아메리카 관계 정책 의제를 개발해 왔다. 2008년 5월 전미쿠바미국재단(Cuban-American National Foundation) 참석을 계기로 그는 상호 이해와 주권 존중에 입각하여 양 대륙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이와 유사하게 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의 상원 투표 기록은 라틴아메리카 지역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보여준다. 조 바이든은 오랜 세월동안 미국의 통상적인 라틴아메리카 접근 방식에서 거의 이탈한 적이 없다. 과거에는 건설적인 포용 정책 그리고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증진시킬 계몽된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할 해안을 지닌 전문가들이 출현했던 황금시대가 있었노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다.

1) 이 글의 출처는 <http://www.coha.org/2008/10/obama-on-latin-america/>이며, 원제는 "Obama on Latin America"이다.



지난 5월 전미쿠바미국재단에서 연설하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자 오바마

오바마의 라틴아메리카 관련 공약

미국은 미주 코러스의 일원이자 연주자이다. 버락 오바마는 2008년 5월에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개진하였다. 마이애미의 보수적인 망명가 집단인 전미쿠바미국재단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오바마는 「새로운 미주 협력(A New Partnership for the Americas)」이라는 13쪽 짜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자신의 행정부가 취할 3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고 있다. (1)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2) 공포로부터의 자유/안전 (3)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기회

미주에서 정치적 자유를 증진시키려는 오바마의 목표는 각국

국민의 필요를 “민주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룰 정부들의 필요성에 의거하고 있다. 오바마는 상기 계획안에서 민주주의의 확대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이 민주적 좌파 정부(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부를 포함하여)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 하에서는 “근시안적으로 이라크에만 초점을 맞춘 잘못된 대외 정책과... 우리의 미주 친구들을 소홀히 하는 정책” 때문에 미국-라틴아메리카 관계가 퇴색되었다고 말한다. 미국은 이제 민주적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의지, 협의의 미국 국익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권만을 지지한 전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로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시 대통령과 그의 이념적 소울 메이트인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과의 밀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이 개인적 관계를 대외정책 구상과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덧붙인다. 오바마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강화는 인권 보호는 물론 쿠데타와 독재 거부에 대한 지원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미국은 인신보호율을 복원하고,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고, 고문과 무기한 구금을 폐지하는 등 국내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오바마는 말한다. 라틴아메리카가 강력한 시민사회, 신뢰할 수 있는 대외정책, 국가의 투명성을 지향하도록 할 작정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라틴아메리카 정책에 대한 좌파 비판자들은 비록 그가 근본적으로 몇 가지 점에서 미국의 주요 라틴아메리카 정책과 결별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미주의 가장 도전적이고 새로운 몇 가지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오바마는 쿠바를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 그는 쿠바계 미국인의 친지 송금이나 쿠바 여행 제한을 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쿠바 국민의 체제 종속을 완화시키려면

“쿠바 국민의 자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미국의 대 쿠바봉쇄의 완전한 종식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쿠바의 민주적인 긍정적 변화를 위해 쿠바봉쇄가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동일한 경각심이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오바마의 생각에 반영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선거유세가 차베스의 격한 포퓰리즘과 차별화되도록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해 왔다. 미국-쿠바 관계에 대한 오바마의 라틴아메리카 공약 비판자들은 민주당 후보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현재 미국의 수정주의적 사유와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범죄

오바마에 따르면 미국-라틴아메리카 관계에서 안보정책은 초국가적인 갱, 폭력, 마약, 조직범죄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갱들의 활동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같은 중앙아메리카 국가 전체에 확산되어 멕시코로 번졌으며, 미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는 갱과 관련된 범죄 및 마약거래를 저지할 미국의 안보 노력을 중앙아메리카에서 증대시키고 개인의 안전 이슈와 관련된 전략적 협력을 도출하겠다고 말한다. 중앙아메리카 각국의 경찰과 사법부의 전문화, 부패 척결, 안보 관련 미주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바마는 미국-라틴아메리카 정책에 대한 더 전통적인 시각, 즉 마약, 무기거래, 불법이민, 조직범죄를 미국 남쪽의 이웃들이 역점을 두어야 할 의제라고 보는 시각과 결별하고,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여에 역점을 두는, 지역적 범죄에 대한 포괄적 전략”을 창출할 필요

성을 깨닫고 있다.

안보 대책을 다루면서 오바마는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중차대한 역할을 강조한다. 멕시코는 마리화나, 코카인, 메탐페타민 같은 마약류의 생산과 선적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오바마는 지역 전체에 만연된 폭력, 부패, 마약, 무기 거래를 격퇴시키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메리다 구상의 지속과 확대를 지지한다. 그는 안보협력이 미국-중앙아메리카 관계를 넘어, 기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더 많은 안보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오바마 스스로도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분쇄하고,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마약 수요 및 공급 감소에 헌신한 경력이 있다. 게다가 그는 마약밀매 척결과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콜롬비아 지원을 지지한다. 오바마는 또한 콜롬비아가 “국경 너머에 도피처를 구한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면서, 최근 콜롬비아가 에콰도르 소재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캠프를 공격한 사건을 옹호했다. 논평가들은 준 민주적인 체제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있는 우리베 정부가 인권유린을 묵인해서 우리베의 정당과 아직도 콜롬비아에서 활동 중인 우파 암살단이 연루된 추문이 있다는 사실을 오바마가 간과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서반구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버락 오바마의 입장은 미국의 대외원조 증대, 직업교육, 소액금융, 공동체 발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보수파의 발전계획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그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에이즈와 폐렴과 말라리아 감퇴를 위해 일할 것이고, 글로벌 교육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 파라과이, 가이아나, 세인트루시아, 볼리비아, 아이티, 온두라스를 위시해 고채무빈곤국(heavily-indebted poor countries)으로 분류된 국가의 외채를

탕감할 것이다. 오바마는 IMF와 세계은행 개혁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 기준을 강화시킨 공정무역을 정착시키고자 할 것이다. 나아가 WTO가 상호호혜 무역협정을 강화시키도록 힘을 쓸 것이다. 오바마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미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노동자의 혜택 증대를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정을 모색할 것이다.

민주당 후보는 견고한 국경안보를 이룩하는 동시에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유산을 재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시민권 획득에 이르는 공정한 방안을 창출하여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를 다루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와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며, 특히 기술 공유, 바이오연료 시장 개척, 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 방안 마련에 있어 브라질과의 제휴관계를 확대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다른 중요한 대책 중에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과 삼림 남벌과의 싸움이 있다.

조 바이든은 어떤가?

버락 오바마의 몇 가지 제안은 조 바이든이 오랫동안 고수한 입장과 일치한다.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바이든은 관타나모의 포로 억류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앙아메리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 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 권리와 환경기준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단언한다. 《워싱턴포스트》지의 마르셀라 산체스 기자의 최근 기사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만연된 불평등에 대한 바이든의 관심을 다루고 있다. 이는 오바마가 ‘새로운 미

주 협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이다. 산체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자신이 라틴아메리카를 괴롭힌 불안정성, 특히 최근 불안정성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적 불평등과 싸워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민개혁에서 오바마와 바이든은 국경안보를 강화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밀입국 노동자와 가족을 흡수할 수 있을 규정제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사람은 또한 2006년의 국경장벽법안(Secure Fence Act)에 따라 미국-멕시코 국경에 700마일에 달하는 장벽을 쌓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바이든과 오바마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쿠바 송금과 여행 제한 완화에 동의하고, 쿠바봉쇄의 해제 없이 쿠바에 소규모 자영업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데 찬동한다. 바이든과 오바마 모두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에 입각한 지속적인 콜롬비아 지원의 지지자들이다.

민주당 선거공약 분석: 미국-라틴아메리카 관계의 빛나는 미래?

민주당 선거공약의 라틴아메리카 부분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혼합적이다. 한편으로, 오바마 지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그의 입장이 과거 미국의 경직된 정책과의 근본적인 단절이라고 본다. 또한 라틴아메리카를 그저 국지적인 군사안보 이슈의 하위 협력자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주권이 있으며 자율성을 요구하는 주권국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사람들은 강조하기를, 라틴아메리카를 좁은 의미의 미국의 지역적 이해를 위한 전략적인 장으로만 취급하는 실패한 정책을 세계화 시대에 미국이 추진할 수는 없다. 온라인 뉴스포털 《허핑턴포스트》의 로라 칼슨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라틴아메리

카 관계는 더 이상 지역적인 대외정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시 대통령은 중동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려다보니 라틴아메리카를 방치했다. 한 예로 미국-라틴아메리카 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담보해줄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여 권력의 공백을 낳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처럼 종종 대단히 이념적인 강력한 인물들이 그 공백을 메웠고, 이 두 정치가는 조지 부시의 인기 없는 통치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반발 역할을 맡아 이 지역을 위한 더 거대한 혁신과 실험을 모색했다. 오바마의 친라틴아메리카 지지자들에게 지금은 라틴아메리카와 소통을 할 시기이고, 미국은 평등, 존중, 상호관계의 정책 기조 하에 더 위대하고 자유로운 정치·경제·안보 협력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오바마의 ‘새로운 미주 협력’ 계획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네 개의 자유’(Four Freedom) 연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행해졌으며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공평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세계비전을 제안한 것이었다. 루스벨트 집권기는 선린외교정책을 입안했고, 오바마는 그의 유산에 의거한 라틴아메리카 관련 선거공약을 만들어냄으로써 미주 관계에서 더 협력적이고, 아마도 더 생산적인 시대를 조성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선린외교정책은 주권과 개발이라는 이슈를 내세워 군사적 개입을 포기했고, 파렴치한 일방결정이 수반된 미국의 고압적 간섭에서 자유롭게 독자적인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 여지를 라틴아메리카에 주었다. 오바마의 라틴아메리카 공약 지지자들은 그의 구상과 정신이 ‘북쪽의 거인’이라는 미국의 평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며, 오바마가 결심만 한다면 미국-라틴아메리카 관계를 안정적이고 상호자율적인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킬 최신 버전의 선린외교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른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라틴아메리카 관계에서 마이애미 및 국내외 망명 중심지의 일부 극단적인 이념가들의 인질로 사로잡히질 않을 만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가능할지 그다지 확신하지 않는다. 오바마가 조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은 그의 대외정책 전문성 때문이다.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는 단지 네 차례 가보았을 뿐이다. 오바마는 단 한 번도 라틴아메리카에 간 적이 없다. 바이든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 필요하고, 공정한 환경·노동 기준을 집어넣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칠레, 페루, 중앙아메리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비판자들은 바이든이 미국 노조의 분파적 이해에 영합하고 있을 뿐이라고 논박한다. 2006년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바이든은 멕시코에 대해 “구닥다리 민주주의”라 부르고, 불법이민 조장과 마약밀매에서의 의심스러운 역할로 비난받아 마땅한 “부패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진실이면 진실일수록, 저임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험값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및 견잡을 수 없는 마약 국내수요 때문에 미국이 불법이주와 마약밀매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서반구 내에서 한층 포괄적인 지역안보블록을 창출하기 위한 메리다 구상의 확대를 지지한다. 메리다 구상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중앙아메리카 안보 계획의 핵심으로 제안한 것으로, 멕시코가 조직범죄 및 마약 카르텔과 싸울 수 있도록 군사적 지원과 경찰력 지원을 하는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다- 규약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군부와 사법부가 부패와 인권유린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서, 현 미국 정책에 대한 비판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사진 중앙)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두드러진 친미 정권으로 꼽힌다. 우리베는 미국의 지원으로 테러·마약조직과 전면전을 벌임으로써 치안질서를 유지, 콜롬비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자들은 대 라틴아메리카 군사지원 증대는 이미 심각한 결함이 있는 법집행시스템을 남용하게 될 지역 당국자의 권한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메리다 구상은 마약거래와 조직범죄와 싸우기 위해 콜롬비아에 군사적 지원과 경찰력 증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플랜 콜롬비아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콜롬비아에서는 인권과 노동자 유린이 군사 조직과 준군사

조직에 의해 대규모로 자행되어 왔다. 미국의 대 콜롬비아 지원액 대부분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플랜 콜롬비아 기금의 극히 일부만이 인권보호에 할당되었다. 바이든은 플랜 콜롬비아 지지를 천명했고, 오바마는 “우리는 국익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가치에 합당한 방법으로 콜롬비아 지원에 계속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안데스 반마약 구상(Andean Counter Initiative)을 계속 가동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베 정권의 광범위한 부패, 현 정권이 묵인하는 계속된 인권유린, 결코 민주적인 인물이라고 하기 힘든 우리베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독재 성향에 대해 바이든이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 점 때문에 어젯밤 오바마의 콜롬비아 언급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오바마는 2007년에는 미국이 대 콜롬비아 군사적 지원과 이 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개혁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보내기도 했다. 최근의 서한 네 통에서도(국무장관 콘

돌리자 라이스에게 보낸 서한 두 통, 당시 국무차관 니콜라스 번스에게 보낸 한 통, 우리베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한 통) 오바마는 콜롬비아의 인권유린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오바마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적 좌파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미국이 이념적 리트머스 시험지 없이 작동할 뿐만 아니라, 워싱턴이 미국의 국익이 걸려 있을 때만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서반구 전체에 심어주려고 한다. 비판자들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 제안이 때때로 혼란스럽다고 논평한다. -오바마는 미주 좌파 정권들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지지하는가 하면,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체포를 목적으로 에콰도르 소재 게릴라 캠프를 공격한 콜롬비아 정부를 옹호한다. 보고타의 이익을 위한 이런 행위는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좌파 정권은 물론 몇몇 미주기구 회원국 입장에서 볼 때 국제법 위반이자 에콰도르에 대한 주권 침해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자국 공격용 기지를 물색한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콜롬비아가 국경을 넘을 권리가 있다고 강변한다. 게다가 오바마는 메리다 구상의 확산을 지지하지만, 콜롬비아와 미국 자금의 새로운 주요 수령자인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2대 보수정권이며 유일하게 그 구상에 관심을 지닐 국가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비록 오바마가 민주적 좌파 정권들의 담론을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라틴아메리카의 더 좌경화된 국가들과의 정책 협상에서 의미 있는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바마는 라틴아메리카와 새로운 협력자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내지만, 미국이 경제, 정치, 안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국가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에게는 눈여겨볼 가치도 없는 일이다. 오바마는 자신의 새로운 개방정책이 어떻게

비치든 간에 단시일 내에는 미국-라틴아메리카 관계의 강화를 위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같은 후보자들을 파트너로 삼지 않을 것이다.

최종 결론

오바마의 라틴아메리카 관련 선거공약의 본질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미주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이 부시의 백악관과 다르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도, 레이건 시대의 라틴아메리카 정책과 별 다를 바 없는 클린턴의 정책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자는 지역 현안에 특별히 정통한 것 같지도 않아서, 지금은 민주당 편에 있는 미국의 목마른 라틴아메리카주의자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 오바마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네 개의 자유’ 이념에 기대어, 실패한 과거 정책들과의 단절을 대변할 수 있었다. 오바마는 미국이, 우호적인 국가이든 아니든 간에 지역의 모든 나라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망명 집단에 의거하고 있는- 국내 우파 세력의 거침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역의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미국의 우파 세력을 울타리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 삼은 오바마의 선택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최근 그의 확고한 정책 구상에 많은 의문을 던져준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창의적인 분석가 그렉 위크스는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에 관한 한 바이든은 “미스터 현상유지”라고 규정짓고,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약속한 자유주의적 개혁

이행에 도전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또한 바이든과 오바마는 지역의 여러 가지 핵심 이슈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바이든의 대외정책 경험은 주로 중동 현안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워싱턴이 새롭고 더 상상력이 풍부한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와 대화에 나서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게다가 미국 당국자들은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이해관계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의 ‘박애주의자’ 조지 소로스와 만난 후, 마약 법안에 대한 자신의 오랜 입장을 극단적으로 표명한 온두라스 대통령 셀라야 사례를 생각해 보라. 비록 오바마가 주권 존중에 의거하여 새로운 미국-라틴아메리카 협력 시대를 고양시키겠노라고 확인하고는 있지만, 그는 워싱턴의 반대 세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지역 내에서 미국의 현 입장, 특히 쿠바와 베네수엘라 관련 입장의 유지를 원하고 있고 또 정통적인 발전전략을 선호한다.

오바마가 그렉 크레이그를 외교정책 보좌관으로 선택한 것은 그의 행정부가 라틴아메리카에 더 이성적이고 참신한 접근을 할 수 있을 정책적 잠재력을 위해 귀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크레이그는 지역과의 협상에서 다자간 접근방식의 지지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선거 및 민주적 정부의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유시장경제의 사회적 고비용을 고려한 공정 무역 기준을 추동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쌍무협정을 뛰어넘는 미주 관계를 선호한다. 크레이그는 오바마 정부가 교역기회, 협의의 안보, 마약 유입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교육, 보건, 빈곤, 기타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이슈들을 미국의 주요 대외 관심사로 삼게 할 수 있다. 미주문제연구회(COHA: 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의 부연구원들인 마이

클 카츠와 크리스 스위니에 따르면, 크레이그는 “워싱턴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²⁾ 비전을 제 공해 줄 수 있다.

서반구 문제에 대한 오바마의 원로 고문인 댄 레스트레포는 미국이 “미주 모든 국가와 협력관계를 맺어 민주주의와 기회와 안보”가 이 지역 전역으로 송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렉 크레이그 보좌관처럼 지역 전체에서 공정무역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단언한다. 또한 오바마처럼 인권유린과 노조 지도자에 대한 폭력을 자유무역 협상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요인으로 꼽으면서 미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 라틴아메리카는 상향식 경제적·사회적 개선 전략을 통해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만일 오바마가 당선되면 그의 라틴아메리카 대외정책의 장단점은 그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요는 이익집단의 압력과 갈등을 무릅쓰고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수할 수 있느냐이다. 오바마가 자신의 선거공약 중 보수적인 측면으로 이동할지 자유주의적 측면으로 이동할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는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에 대항할 그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극우파의 정책적 입장은 그 입장에 걸맞게 임명된, 매케인 상원의원의 라틴아메리카 보좌관 오토 라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결집할 것이다. 오바마는 또한 클린턴의 온건한 민주당 인사들과의 협상도 불가피하다. 이들은 자유무역 정책을 선호하며, 카스트로의 쿠바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 상대적으로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오바마의

2) 원주 - COHA, "Obama Adviser Greg Craig: A Man of Merit", August 19, 2008.

공약은 지역협력에 희망을 주고, 국경 남쪽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잘못된 자세를 바꿀 수 있을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 후보들은 종종 백악관에 들어가기 위해 약속을 할 뿐, 약속을 명예롭게 이행하는 데는 실패한다. 라틴아메리카 이슈가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의 제안은 공허한 것일 수도 있고, 미주 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실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콜롬비아는 우리네 대통령의 사이비 민주주의와 실재를 구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바마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콜롬비아는 오바마의 지역 정책 뒤에 감춰진 진정한 차이를 증명할 상징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

[우석균 옮김]

로렌 넬슨(Lauren Nelson): 미주문제연구회(COHA: 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 Research Associate) 부연구원
